

찬양과 기도의 달

믿음의 성장 / 신앙생활의 성숙 추구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감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말씀이 들리면 축복,
 믿어지면 은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정줄리 권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6:26-40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179장 / 주 예수의 강림이
(통일찬송가 167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동숙 집사, 구 민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최선운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상 15:9-24

하나님 보다 교육지책을 선택한 유다왕 아사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 ▶ 9월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찬양과 기도의 달입니다.
- ▶ 삶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1. 금주는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2. 친교와 영적성장을 이루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Cell 모임(Oikos 사역)을 다음 주일(16)에 가집니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하나님의 은혜로 2018 년 전교인 수련회를 노동절 연휴에 마쳤습니다. 계획과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Oikos 사역으로 17 주간 성경 1 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취합니다.
5.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6. 설립 3 주년 감사찬양집회와 준비를 위한 Relay 기도가 계속됩니다. 또한, 초청할 이웃의 명단을 예배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 ▶ 한국방문/건강회복: 구은강 (9/11일 귀국 예정)

기 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 배 섬 김 이

| | | | | |
|---------|-------------|-------|-------------|--------|
| 주일예배기도 | 9/16 | 9/23 | 9/30 | 10/7 |
| | 최내권집사 | 구은강집사 | 김훈태집사 | 최선윤집사 |
| 금요일예배기도 | 9/21 | 9/28 | 10/5 | 10/12 |
| | 구 민 집사 | 김태성집사 | 유동숙집사 | 유덕하집사 |
| 주일헌금위원 | 9/16 | 9/23 | 9/30 | 10/7 |
| | 김훈태집사/오정은집사 | |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 |
| 주일안내위원 | 9월 | | | 10월 |
| | 정줄리권사 | | | 구 민 집사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 요한복음 6:1-13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두 제자.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능성을 판단하는 빌립과 반면에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안드레 중 우리는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다. 계산해서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긍정적이며 실천적인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test, 다시 말해 점검해 주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타고난 품성도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이고 실천적 사람이 된다. 그리하여 맡겨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와질 수 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 요한복음 6:26-40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을 가진 성도답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 요한복음 6:26-40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 보면서 신앙생활의 목표에 관해 살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른다고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거창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만찬을 뜻합니다. 성만찬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 놓으셔야 했으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의 일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살 값, 예수님의 피 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하였다면, 이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를 드리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얻으려 다닐 경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섬길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드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자신을 던져 채우고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교회와사역

수련회 단상 -

노동절 연휴에 전 교인이 교회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수련회를 가지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1층 라운지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유리 밖으로 비치는 밤하늘을 보노라니 잠 들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덕담과 아름다운 격려로 밤을 새다시피 했다는 여교우들.

맛난 저녁을 만들기 위해 갑자기 퍼붓는 빗 속에서도 바비큐 불을 살리고, 여러 사람이 별로 먹어 본 적이 없는 '돼지 옆구리 살'을 적당히 구워지도록 애쓰는 마음에 묻어 나는 섬김의 기쁨.

잠시 서 있어도 허리 아플텐데 쉬임 없이 기타를 들고 마음 깊이 울려 나오 찬양을 준비하는 열정. 그렇게 까지 안 해도 좋아 보이는데 뭘가를 귀에 쓰고 조금이라도 세밀한 소리의 오차를 점검하는 철저함. 그래서 모두의 목소리가 음악이 아니라 차라리 한 소리의 기도였나보다.

하루 종일 운전 후 먼 길을 달려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오는 헌신과 불편한 몸 때문에 교회에서 잘 수 없었음에도 새벽예배에 함께 하는 간절함. 우리 교회를 받쳐 주는 열정의 시작이다.

피곤할 쯤에는 조금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답게 환한 교제와 웃음이 있다. 교제가 단지 영적 엄숙함의 결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이 함께 열매 맺어 가도록 하는 수레바퀴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대화는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였다. 삶에서 가지는 솔직한 실망과 낙담. 안일함과 불신. 하나님 앞에 내려 놓는 겸손함. 믿음을 갈구하는 고백. 찬양 속에서 주님을 아는 기쁨. 여러 이야기가 다 나와 맛 달았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돼 버렸다.

조선에서 죽어 간 선교사의 모습이 내 '편안한' 신앙을 반성하게 하고 요나서의 말씀은 왜 그리 또 나를 돌아 보게 만드는지.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반쯤 쉰든한 목소리로 어디선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목사님. 좀 느긋하게 설 법도 한데...못 살아...'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겨야 할까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은 너무 부족해 맘 먹고 들여다 보면 문제투성이었을 수련회. 그 송송뚝뚝 구멍을 주님이 매워 주신게 분명하다. 주님이 불평의 시선을 은혜의 렌즈로 막아 주셨나? 주님이 때문에 긍정적이 되니 감사와 은혜로 넘쳐났다. 주님이 아니셨으면...이제는 주님께 더 잘해야겠다.

수련회 기도 제목 -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 개인의 중단 없는 믿음 성장과 영적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
- ▶ 건강이 필요한 지체의 회복
- ▶ 자녀들의 신앙 성장, 특히 교회를 떠난 자녀의 신앙 회복